

[현장논단]

## 누구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변화

윤 현 정\*

기후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나는 환경문제나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안 될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길 정도였다. 가끔 북극곰의 사진과 영상에 조그마한 죄책감이 올라와 분리수거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는 말은 언제 처음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말이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구 온난화는 이미 심각했다.) 매년 지구의 날, 학교에서는 표어 짓기 대회를 열었고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 분리수거 잘하자는 뽀얀 표어를 지어 제출하고 빙하가 갈라지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영어수업 안 해서 좋긴 하네.’ 같은 생각만 하는 평범한 청소년이었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잠자는 일상에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낸 문제는 보이질 않으니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구 온난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일’, ‘100년 뒤에나 찾아올 문제’,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일 뿐이었다.

나는 울산에서 자랐다. 칙칙한 공업도시 울산에 사는 나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원전이었다. 울산은 고리, 신고리, 월성 등 원전으로 둘러싸인 도시다.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원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틀어줬고, 원전에 관한 토론 수업을 진행했다. 가족들끼리 주말에 외출을 가면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쓰여있는 표지판을 마주

\*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하고, 경주와 포항 지진 때 대피하면서도 가족의 안부보다 원전을 먼저 걱정할 정도로 원전은 삶과 가까이 있는 존재였다. 우리 집은 원전으로부터 20k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항상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머리통을 굴렸다.

그러다 한 여름, 울산에 거대한 태풍이 닥쳤다. 밤새 시끄럽더니 아침에 등교하러 나가보니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부서지고, 나무와 신호등이 꺾여있었다. 동네가 난장판이었다. 긴 시간 정전이 발생해 학교에서도 조퇴할 수밖에 없었다. 태풍으로 원전도 가동이 정지됐다. 학교가 일찍 마쳤다고 기뻐할 만큼 철이 없진 않았다. 처음으로 기후위기가 나에게 ‘위기’로 다가왔다. 유독 그해 여름에는 태풍이 자주 왔고, 태풍이 오는 날이면 잠들지 못하고 한수원 홈페이지에서 원전가동현황판만 무한히 새로고침하며 밤을 새웠다.

그날 이후로 기후위기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책, 영상, 기사 등 찾아서 보고 읽었다. 기후위기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100년 뒤에나 닥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었고,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이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일이었다.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느끼면서, 기후위기를 ‘나의 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나의 일’로 여기게 되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처음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다. 내가 배출하는 탄소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장 보러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10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랐다. 철물점에서 사온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고, 도시락을 싸다니며 채식을 했다. 그런데 기후위기를 알아갈수록 기후위기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 나 혼자만의 일상을 바꾸는 것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았다.

내가 사는 울산에서 변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기후위기를 알리고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서의 변화부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변화

를 만들 방법을 찾다, 나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시위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시위를 시작했다. 분리수거장에서 박스를 주워 물감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서 피켓을 만들었다. 그 피켓을 들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주말에는 시청과 공원 앞에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읽어보고 갔고, 응원의 말을 해주었다. 그렇게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교육감, 시의원, 부시장 등 지역의 정치인들이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만나게 되었지만, 지역 내의 기후위기 대응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는데 시위는 그만 하는 것이 어떡냐.”, “시위 같은 극단적인 활동 말고 동아리 같은 걸 해라.” 같은 말만 들었고, 페이스북에는 “우리 지역의 기특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글만 올라왔다. 바뀌는 건 없었다.

두번째 실패 이후, 또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데, 그럼 뭘 할 수 있지? 이때, 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고, 무작정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하게 되었다.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았다. 처음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환경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제안서를 보내거나, 직접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선거가 다가올 때는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냈다. 석탄발전소 투자 및 건설과 같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늘리는 결정이 일어날 때는 해당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 이에게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책의사결정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거나 의사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의 한계

를 직면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기대는 방법은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19명은 국가의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며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우리는 4년 반 동안 그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후소송은 단지 좋은 캠페인 수단 중 하나 정도가 아니었다. 이 헌법소원 사건 결정이 만들 수 있는 변화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되고, 기후대응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른 그 어떤 캠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승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법정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면서, 법정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했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권위나 전문성이 없는 이들도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소송이, 기후위기를 마주한 사람들 모두의 일이 되길 바랐다. 이 소송이 법정 내에서만 머물거나, 소수에게만 유의미하지 않길 바랐다. 실제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다.

그러다 ‘제3자 의견서’라는 걸 제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제3자 의견서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할지, 누구의 말이 담겨야 할지 고민했을 때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승소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내기 위해서 누구나 주체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기후대응 이의있음: 우리의 말은 헌

법재판소로 간다.’라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말을 남길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도 만들어 이야기를 모았다. 그렇게 몇 문장에서 몇 페이지의 긴 글까지 5,289명의 이야기가 모였고,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기후대응 최저선을 만들었다. 기후위기 대응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정한 것이다.

그동안의 기후대응은 늘 현실적이라는 말에 숨어 어떻게든 단기적인 부담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골몰했다.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 말고 나중에 미루는 것을 현실적이라며 포장했고, 정작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외면했다. 정말로 그 조치, 정책, 법으로 기후위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삶이 지켜지는 수준인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최소한의 기준도 없던 기후위기 대응에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생겼으며,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만든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 행정과 입법이 자율성이라는 말에 숨어 보장하지 못하던 권리를 우리는 되찾았다.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후운동을 만들어온 지도 벌써 7년 차이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기에 기후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나의 일’이라는 자각이 우리를 기후 운동으로 이끌었고 지금의 위기 속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감각에 우리는 피켓을 들고 변화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제를 가장 먼저 경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야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의사결정부터 석탄발전소 건설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당사자로도 인정되지 않았고,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당연하게 빠져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은 소수 전문가와 의사결정권자들의 영역이며, 그 속에서는 과학 기술과 발생하는 비용, 산업계의 의견만 논의되었다. 실제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는 고려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듣는 시늉만이 반복되었다. 권위와 전문성을 조건으로 만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기후위기가 닥치는 사회에서 위험을 어떻게 줄이고,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호할지와 같은 장기적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위기를 막지 못했다.

당사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배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없었다. 어쩌면 기후대응이 삶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들이 발화할 수 있는 공간을 박탈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기후대응은 평범한 사람들을 기후위기라는 문제 속에서 주체로 설 수 없게 만들었다.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우리를 대변해줄 수 없다는 건, 직접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필요하게 했다. 우리는 말함으로써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했다.

헌법소원의 판결로 할 수 있는 것들과 닿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기회도 주어졌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해온 것을 떠올렸을 때 걱정부터 드는 건 사실이다. 우리가 몇 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찾은 이 기회가 저번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결과로 나타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높은 수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들과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 ‘숫자싸움’을 하는 캠페인을 그리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은 적당히 온실가스 배출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판에 사

람들을 끌어들이기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참여의견서를 모은 것처럼, 기후위기를 권리의 문제로 마주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한다.

헌법소원으로 얻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저선을 높여가려고 한다. 조금은 딱딱한 언어로 정의된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덧칠하고자 한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모아내면 법안이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과 수준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국회에 최선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를 전달하고, 물러설 수 없는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처음 기후운동을 시작할 때보다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원래도 희망 같은 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희망해졌다. ‘어쩌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지도 몰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과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남아있으니, 해봐야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매일매일을 고민한다. 매일 고민하지만, 매일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해 봐야지.’ 쪽이 이긴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시작할 때는 헌법소원이 잘되면, 승소하게 되면 기후 위기가 다 해결될 거라는 막연하고도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다. 헌법소원이 끝나고 난 지금은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지금의 기회를 위해 준비해온 시간처럼 느껴졌다. 법을 바꿀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가 5년 동안 법정 안과 밖에서 해 온 모든 일은 다 이 기회를 잘 잡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 이후 부담감이 커졌다. 기후 헌법소원의 승소는 우리가 만든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것이고, 이 변화로 만들어진 기회는 쉽게 오지 않으니까.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4년 반의 시간 동안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허참고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관성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은 사회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조금은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변화보다 더 커질 거라고 믿는다. 그 변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주체로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